우리나라를 찾는 여행객 대부분이 처음 만나게 되는 '인천'은 우리나라의 출입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비단 여행객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인천에 방문하면 살짝 열린 문틈으로 다른 시대 혹은 다른 나라를 들여다보듯
익숙하지만 낯선 풍경과 문화가 우리를 반긴다.

글. 권다인(이팝) **사진 및 자료.** 한국관광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시설공단

근대사의 무대, 즐거움의 무대가 되다

인천

인천의 주요 명소를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중국의 역사 속에서 문화를 만끽하는 '차이나타운'

1883년 인천항이 개항되고 이듬해 중국영사관이 문을 열면서 중국인들이 유입되어 자신들의 생활 문화를 정착시킨 곳이다. 붉은색 간판에 쓰여진 한문, 곳곳에 걸린 홍등 등 중국의 문화와 삶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덕에 마치 중국에 방문한 듯한 인상을 준다.

차이나타운에 방문했다면 뭐니 뭐니 해도 중국 음식을 빼놓을 수 없다. 공갈빵, 월병, 양꼬치 등 취향에 맞는 길거리 음식들로 출출한 배를 채울 수 있고, 긴 줄이 부담스럽지 않다면 차이나타운의 명물로 여겨지는 화덕만두를 먹어보는 것도 좋다. 제대로 된 한 끼 식사가 필요하다면 공화춘의 역사를 잇는 신승반점, 하얀짜장이 처음 탄생한 연경 등 유명한 중식당이 많으니 원하는 곳을 골라보자. 오랜 역사를 간직한 식당들답게 내공이 담긴 제대로 된 중식을 즐길 수 있다.

'중국' 하면 '짜장면'을 떠올리는 많은 사람을 때문일까. 차이나타운 앞에는 짜장면박물관도 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공화춘 건물에 개관한 박물관은 짜장면이라는 요리의 역사를 가볍게 둘러볼 수 있다.

배가 충분히 찼다면 10분 거리의 개항장 거리까지 걸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가는 길에 해안성당, 한중원 등의 명소도 만날 수 있다. 개항장 거리는 한국 최초의 근대 호텔로 꼽히는 대불호텔과 국내 성당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근대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는 답동성당 등 근대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 역사를 지켜 보존하면서도 그 특색을 잘 드러내 방문객들이 인천 개항 당시를 체험하듯 즐길 수 있다.

주소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로26번길 12-17
문의 032-760-6475
홈페이지 ic-chinatow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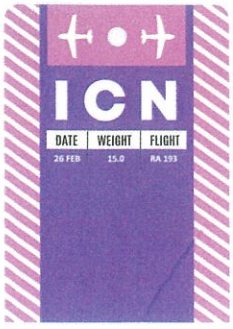
과거의 감동과 현재의 즐거움이 공존하는 '월미도'

달의 꼬리처럼 생겼다 해서 이름 붙여진 월미도는 러일전쟁, 병인양요, 인천상륙작전 등 주요 근대역사가 펼쳐졌던 곳이다. 지금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유원지 중 하나로 잘 알려졌다. 월미도는 곳곳에서 다양한 테마파크가 운영되는 덕에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웃음과 짜릿한 비명을 쉽게 들을 수 있다. 먼바다가 보이는 바이킹, DJ의 입담으로 월미도의 명물처럼 자리 잡은 타가다디스코, 높이 115m에 달하는 관람차까지 놀이공원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이만한 여행지가 또 없다. 월미도에 방문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즐길 거리는 월미바다열차다. 월미도를 순환하는 관광 모노레일로, 총 4개 역을 정차하는 데 40분 남짓이 소요될 정도로 긴 코스다. 어느 역에서나 탑승할 수 있고, 하루 1회 재탑승도 가능해서 원하는 정차역에서 하차 후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고 다시 탑승해도 된다. 모노레일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데에는 모노레일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풍광이 있다. 바다, 산, 심, 항구, 도시에 이르기까지 월미도 구석구석을 구경하느라 40분의 시간이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군부대의 주둔으로 50년간 출입이 제한되어 있던 월미공원도 월미도 추천 장소다. 월미산에 조성된 공원으로, 2001년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오랜 시간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던 덕인지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한편, 인천상륙작전의 시발점이었던 것을 증명하듯 폭탄의 파편이 박힌 나무 등도 볼 수 있다. 아픈 과거를 이겨낸 자연의 경이로움을 온몸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주소 인천 중구 북성동1가 98-352
문의 032-760-6475
홈페이지 wolmi-do.co.kr

1+2월 인천
여행 추천 코스



01 차이나타운

1883년 개항 이후 청나라를 비롯한 열강이 첫발을 내디딘 인천. 그중에서도 1920년대 청관거리라 불렸던 곳이다. 해방 이후 중국인들이 빠져나가며 쇠락의 길을 걸었으나, 관광지로 주목받으며 다시금 인기를 끌고 있다.

02 송월동 동화마을

2013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낡은 담과 옹벽에 세계 명작동화를 테마로 한 벽화를 그렸다. 도로시의 길, 빨간모자 길, 엄지공주 길 등 11개의 동화를 만날 수 있고 이곳저곳 조형물도 설치되어 있다. (인천 중구 송월동3가 17-1)

공원 안에 담긴 네 가지 이야기 '청라호수공원'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청라호수공원은 도시 외곽을 흐르는 자연 하천인 공촌천과 심곡천의 물을 끌어다 조성했다. 전체 면적은 10.3㎢로, 국내 호수 공원 중 가장 큰 규모다. 워낙 넓어서 공원 전체를 한번에 둘러보긴 어렵다. 생태, 예술, 전통, 레저라는 네 가지 콘셉트에 따라 구역이 나뉘어 있으니, 방문하고자 하는 구역을 미리 살펴보고 가는 것이 좋다. 청라호수에는 크게 세 개의 섬이 있는데, 그중 가운데 섬에는 전망 타워인 청라시티타워가 지어질 예정이다.

청라호수공원은 무엇보다 드라마 〈더글로리〉의 여운이 아직 남은 이들에게 반가울 여행지다. 드라마에서 본 바둑공원이 그대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부로 들어갈 수는 없어 밖에서 구경하는 것이 전부지만, 커다란 바둑알이나 주인공들이 앉아 바둑을 두었던 장소까지 남아있다.

드라마 촬영지로만 유명한 것은 아니다. 호수 주변으로 자전거길과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여가생활 공간 노릇을 톡톡히 한다. 혹 몸으로 즐기는 체험이 하고 싶은 이들이라면 수상레저 테마파크에 방문해보자. 백조보트, 메달보트, 바스켓보트, 페달카약, 카약 등 다양한 수상레저를 경험할 수 있다.

공사비만 70억 원이 넘게 들었다는 초대형 음악분수는 청라호수공원의 명물이다. 분수 앞쪽에는 계단식 관람석이 있어 분수를 관람할 수 있다. 팝송, 클래식, K팝 등 여러 장르의 음악과 물줄기가 어우러져 선보이는 퍼포먼스는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주소 인천 서구 크리스탈로 131
문의 032-456-2749
홈페이지 www.insiseol.or.kr/park/cheongna

03

청라호수공원

드라마 〈도깨비〉, 〈더글로리〉 등이 촬영된 아름다운 공원이다. 공원 내에 공립도서관, 문화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을 만큼 큰 규모를 자랑한다. 주변으로 맛집과 카페도 여럿 자리하고 있어 산책과 함께 즐기기 좋다.

04

월미도

1980년 이후 관광지로 조성되어 다양한 놀이 시설과 해수욕장, 호텔 등이 들어섰다. 2001년에는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해안가를 따라 음식점과 카페 등이 있다.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즐기며 일몰을 감상해보자.

05

국립세계문자박물관

2023년 6월 문을 연 박물관이다. 기원전 2100년 무렵의 문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문자 자료 244건, 543점을 소장하고 있다. 세계문자박물관으로는 프랑스의 상폴리옹세계문자박물관과 중국문자박물관에 이어 세 번째다.(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17)